

우리가족 한마당

강철은 뜨거운 쇳물의 단련을 거쳐 이루어진다. 포항지부는 이 쇳물처럼 회원의 뜨거운 친목과 단결로 어우러져 오늘날 이름난 단단한 조직 운영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포항지부는 분기별 세미나 개최로 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다.

흔히 우리나라 지형이 토끼 형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일본에 의해 왜곡된 것으로 실제로는 호랑이 형상이다. 대륙을 향해 앞발을 치켜든 용맹한 기세의 호랑이. 그 호랑이의 기세를 뒷받침하는 영치뼈와 꼬리 부분이 접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곳이 포항이다.

포항하면 우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영일만 검푸른 파도의 바다와 그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해 그리고 지금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있게 한 원동력인 포항제철이다. 그러나 제과업계로 보면 쇳물같은 뜨거운 결집력으로 강철같은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포항지부를 빼놓을 수 없다.

1981년 창립 130여 회원이 단단한 조직운영

포항지부(지부장 오종석)가 탄생한 것은 1891년으로 올해 16년을 맞는다. 타 조직과 마찬가지로 포항지부는 초창기 30여 적은 회원으로 인한 어려움을 딛고 회원의 노력으로 92년 자체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탄탄한 조직 운영을 보이고 있다. 현재 포항지부는 오종석 지부장을 비롯해 고문, 부지부장, 각 부문 이사 등 총 19명의 임원진으로 구성돼 있다. 임원 구성을 보면 다른 면이 발견되는데 기술 부문은 물론이고 체육 친목·홍보 경조 이사가 있어 눈길을 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기술 발전과 회원의 친목·단합을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실제로 포항지부는 회원의 기술 발전을 위해 분기마다 외부 기술인 초청 기술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비교적 비슷한 규모의 타 조직보다도 이처럼 기술 세미나가 많은 것은 세미나에 대한 열의가 높은 것도 있지만 지부 사무실 내에 자체 세미나 시설이 있어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기도 하다. 또 포항 지역은 전국의 유명 기술인과 어깨를 견줄만한 기술인이 이 지역에 자리잡고 있고 소비자를 이끄는 제품 추구라는 전반적인 인식으로 타 지역보다 기술 수준이 높은 편이다.

이밖에 회원간 친목과 단합을 위해 포항 지부는 매년 야유회와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어 탄탄한 유대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친목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포항지부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친목회 회원들이 서로가 이틀 정도만 못보아도 금해서 못 전될 정도라는 말에서 서로의 친목이 어느 정도인지 기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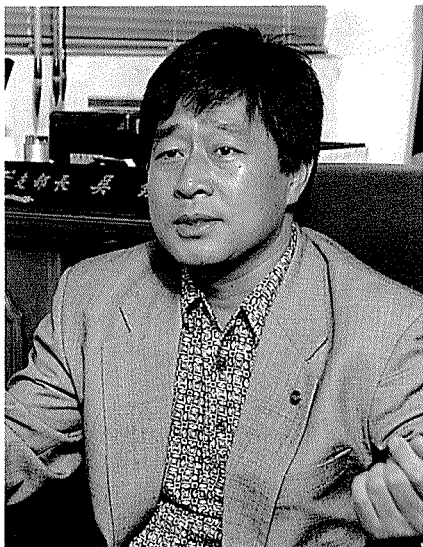
활발한 기술세미나, 공동구매로 회원의 신뢰받아

현재 대구를 제외한 경북 제 1의 도시인 포항의 규모에 걸맞게 포항지부는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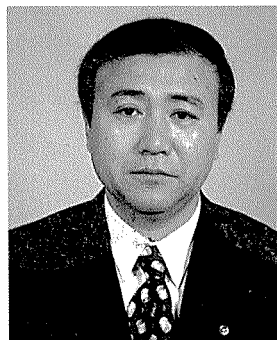


포항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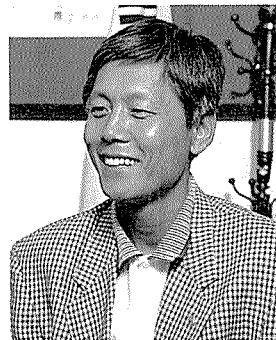
쇳물처럼 뜨거운 정으로 단단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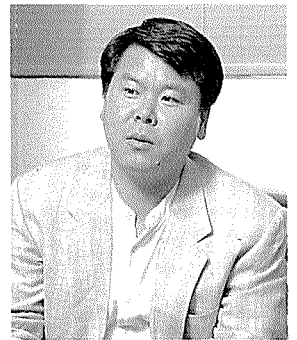
오종석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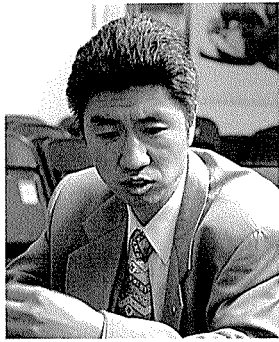
진상득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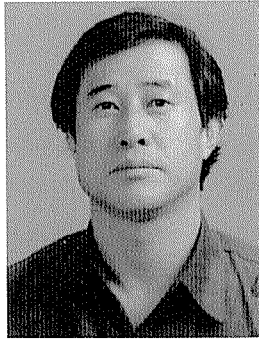
오부기 부지부장



조성환 부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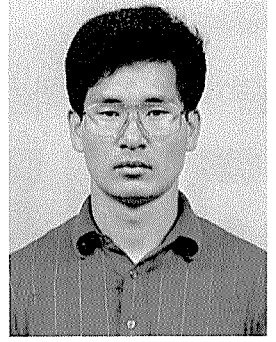
김호영 이사



서종일 이사



최두석 이사



황상문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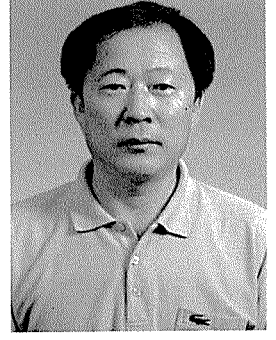
이두열 사무국장



손석희 자율지도위원



오수현 자율지도위원



김진기 자율지도위원

민원기 감사

강석원 이사

여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결코 적지 않은 수이지만 한결같이 회원의 지부에 대한 신뢰는 100%에 가까울 정도로 절대적이다. 지부가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는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지부의 집행부가 회원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새로 업소가 생겨나면 빠짐없이 제품 제조에 쓰이는 계란 몇판이라도 건네며 발전을 기원하는 진심 어린 축하에서 다져진 단결력으로 지부가 추진하는 모든 일에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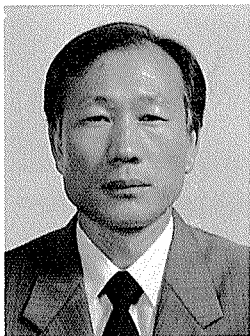
이외에 포항지부가 회원의 실질적 이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동구매사업도 포항지부에 대한 회원의 신뢰를 더욱 굳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실제로 포항지부는 공동구매를 다양하게 하는 편이다. 중앙회 차원의 팔, 호두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마아가린, 우유, 후루츠 카테일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각 업체의 제품 중 질과 가격을 고려해 공동구매를 실시함으로써 회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까닭에 포항지부 재과인들은 상당수가 외지에서 유입돼 재과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상호 유대 관계가 두텁기로 정평이 나왔다. 또 지부의 회원 친목을 위한 노력으로 회원 누구나 지부 사무실을 부담없이 방문할 정도로 격이 없는 것이 자랑이다.

씻물처럼 뜨거운 친목과 단결로 내일의 발전 준비

이상에서 나타났듯 포항지부는 특유의 친목과 결집력으로 탄탄한 지부 운영을 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흡사 쇠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흡사하다. 철강석을 녹인 수천도의 씻물이 어우러져 단단한 강철을 만들어 내듯 오늘날 포항지부가 있기까지 지부의 회원을 위한 노력과 회원의 지부에 대한 믿음이 쇠보다 더 강한 조직을 이끌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포항지부는 이런 친목과 단결력을 바탕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포항시가 인구 53만명의 도시이긴 하지만 죽천지역에 2000년에 이르러 부산에 버금가는 신항만이 들어서면 인구 100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자연히 그때가 되면 포항지부의 규모 역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포항지부의 미래는 영일만에서 바라보는 확 트인 바다처럼 거칠 것 없이 밝다. 굳이 신항만 건설에 따른 도시의 발전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회원 모두가 보여준 '씻물' 같이 뜨거운 친목과 단결력이 있기에 내일의 발전을 예상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회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살아 꿈틀 거리는 곳이 포항지부이기 때문이다.  <글/ 박종선>



김택수 감사

조직 운영